

한·영 의성어·의태어 비교 및 번역 기법*

김도훈

(부산외국어대)

1. 서론

의성어·의태어는 거의 모든 언어에 존재하며, 감각이나 행동을 소리 또는 움직임의 차원에서 표현하는 특성을 가짐과 동시에 생동감과 마음의 움직임, 즉 ‘역동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배성봉과 박혜원 2012: 101).

특히, 한국어 의성어·의태어는 수적·질적으로 풍부하며 사용 빈도가 높다. 사전에 등재된 35~40만 어휘 중 의성어·의태어가 무려 1만 5천 개 이상이며 모두 고유어이면서 음운, 형태, 의미적 측면에서 상당한 체계를 갖고 있을 정도로 의성어·의태어는 한국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박동근 2008: 12).

반면, 영어의 경우 의성어·의태어의 수가 1500여 개에 불과하고 주변부적(peripheral), 미성숙한(immature), 불필요한(unnecessary), 언어적으로 미흡한(less-linguistic) 장치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Schourup 1993: 52). 특히, 의태어

* 이 논문은 2014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는 극히 소수이며 광의의 의성어에 포함될 뿐이다.

위와 같은 간극이 존재할 경우 의사소통의 가교인 번역가는 그 격차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 의미는 물론 문체와 효과까지 옮겨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번역 등가, 특히 수용자 반응 차원의 등가¹⁾를 구현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아래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1] 한국어와 영어 의성어·의태어 간에는 어떤 격차가 존재하는가?

[2] 한국어 의성어·의태어를 영어로 옮길 때 어떤 기법이 사용될 수 있으며, 장단점과 유의점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1]은 한국어와 영어에서 의성어·의태어의 개념과 특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인식하고 번역에의 함의를 찾기 위함이다.

연구문제 [2]는 한국어 의성어·의태어의 번역 사례 분석을 통해 번역 기법을 분류하고 각각의 장단점 및 유의점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한국어 의성어·의태어의 개념 정의 및 해석에 있어서는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표준국어대사전>(2008)을 따르되, 부족한 부분은 박동근(2008), 채완(2003) 등의 학술 연구로 보충하기로 한다. 반면, 영어 의성어·의태어의 경우 국가 차원의 사전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념 정의 및 해석에 있어 Merriam-Webster(2010) 등의 사전류, SPE(1931/2006), Schourup(1993), Sharp and Warren(2009) 등의 학술 연구, Books LLC(2011) 등의 의성어·의태어 실용서를 균형 있게 따르기로 한다.

2. 한·영 의성어·의태어 비교

한국어와 영어 공히 의성어·의태어를 하나의 언어적 기재로 보유하고

1) Nida and Taber(1982: 23)는 원문을 읽은 독자와 번역문을 읽은 독자가 보이는 반응을 고려하여 번역을 해야 하며 두 언어의 대응점을 찾는 것은 반응의 계층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Macaulay(1994: 162)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의사소통의 성공 여부는 수용자 반응에 달려 있다고 논증한다.

있지만 개념적으로 일치한다고 보기 힘들며 문법적 범주나 형식 차원에서도 격차가 크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의성어·의태어를 한국어와 영어로 나누어 살펴본 후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2.1. 한국어 의성어·의태어의 개념

흉내말, 시늉말, 상징어, 상징부사 등으로도 불리는 한국어 의성어·의태어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국립국어원 2008).

표 1. 〈한국어 의성어·의태어의 사전적 정의〉

	정의	예시	비고
의성어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썹썹, 멍멍, 땡땡, 우당탕, 퍼덕퍼덕	≒ 사성어, 소리시늉말, 소리흉내말, 의음어
의태어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	아장아장, 엉금엉금, 번쩍번쩍	≒ 꼴시늉말, 꼴흉내말, 짓시늉말

학자들의 의견도 큰 틀에서 일치한다. 김미옥(2004: 40)은 “의성어는 사물의 소리를 본뜬 말이고 의태어는 사물의 모양이나 짓을 흉내 내어 만든 말이다.”라고 정의하며, 남풍현(1993: 93)은 “의성어란 사물의 소리를 모방한 단어이며, 사물의 상태나 모양을 모방한 의태어는 인간의 오감 가운데 청각을 제외한 시각, 미각, 후각, 촉각에 의하여 모방한 단어들을 모두 가리킨다.”라고 설명한다. 박동근(2008: 14) 역시 같은 맥락에서 “흉내말은 자연계의 소리를 그와 유사한 음성으로 모방하여 관습화된 ‘소리흉내말’과, 소리 이외의 모양이나 상태를 특정한 음운으로 모방했거나, 모방했다고 인식되는 ‘모양흉내말’을 두루 일컫는 국어의 특수한 낱말군이다.”라고 정의한다.

다만, 의성어나 의태어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소리나 모양을 모두 나타내는 상징어들은 ‘의성의태어’(예: 혁혁, 줄줄)로 부를 수 있다(김경희 2011: 35).

참고로, 한국어 의성어·의태어의 기본 품사는 부사이며, 세부적으로는 서술성 부사로 분류된다(목정수와 연재훈 2000: 92). 다만, 광범위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독특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어휘 부류이므로 전체를 묶어서 하나

의 문법적 범주를 설정하기는 쉽지 않다(채완 2003: 37-38). 명사나 관형사, 또는 감탄사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파생접미사 ‘거리다’, ‘하다’, ‘이다’, ‘대다’ 등과의 결합을 통해 동사 또는 형용사로 파생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다른 품사에 속하는 어휘들과 차별화된다(박동근 2008: 18).

2.2. 영어 의성어·의태어의 개념

영어의 경우, 의성어를 가리키는 용어 ‘onomatopoeia’는 존재하지만 개별 의태어들을 총칭하는 용어는 없다. 물론, 의태어를 ‘mimetic word’ 또는 ‘mimesis’라고 표현할 수 있고, 소수의 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이는 주로 영어 외 일부 언어들 의태어를 가리키고 설명하기 위한 용어일 뿐 영어에서 독립적인 낱말군의 위상을 차지한다는 방증은 아니다.

소리상징(sound symbolism)의 일종인 영어 의성어(onomatopoeia)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Merriam-Webster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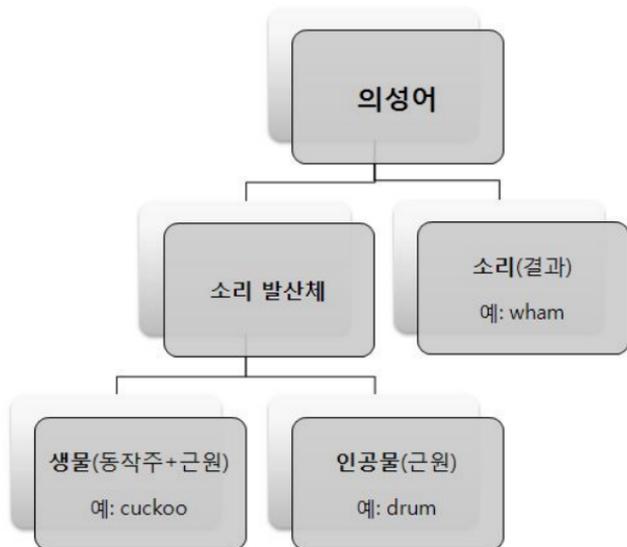
표 2. <영어 의성어의 사전적 정의>

	정의	예시	비고
Onomatopoeia (의성어)	Words that imitate natural sounds (자연적 소리를 흉내 낸 단어)	buzz, hiss	≡ sound symbolism, onomatopoeic word, echoing word

학자들의 견해도 큰 틀에서 일치한다. Fromkin, Rodman, and Hyams(2011: 289)는 의성어를 “지시하는 대상이나 행동과 관련된 소리를 흉내 낸 단어”라고 정의하면서 ‘buzz’와 ‘murmur’ 등을 예로 들고 있으며, Bussmann(1996: 340)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자연으로부터 나온 소리를 흉내 냄으로써 형성된 단어”라고 정의하면서 ‘cock-a-doodle-doo’, ‘meow’, ‘splash’를 예로 든다.

특이한 점은, 영어의 경우 발산된 소리 자체를 흉내 낸 - 또는 소리 자체와 흡사하다고 관습적으로 인식되는 - 의성어도 있지만 소리 발산체(sound-emitting entity) 자체가 의성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Pharies 1979: 84; Sharp & Warren 2009: 442).

그림 1. <영어 의성어의 분류>2)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발산된 소리, 즉 결과를 흉내 낸—또는 그렇다고 인식되는—의성어와 더불어 소리 발산체(sound-emitting entity)에서 유래된 의성어도 존재한다. 소리 발산체는 생물(animate)과 인공물(artifact)로 구분되며 생물은 동작주(agent)이면서 동시에 근원(source)인 반면 인공물은 근원이지만 외부의 힘이 가해져야만 소리를 발산할 수 있다. 이러한 의성어는 최초에는 명사로 사용되다가 동사, 감탄사 등 다양한 품사로 파생되는 경향이 있다(Sharp & Warren 2009: 442).

앞서 설명했듯, 영어의 경우 독립적인 낱말군으로서의 의태어는 존재하지 않지만 의태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zigzag’, ‘flicker’, ‘helter-skelter’, ‘twinkle’, ‘hubble’, ‘bubble’ 등의 의태어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수적으로 빈약하고 사용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의태어를 집합적으로 가리키는 용어가 고안되지 않았다. 대신, 의태어를 의성어의 연장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Sharp and Warren(2009: 439)은 의성어(onomatopoeia)는 주로 청각적 형태와 관련이 있지만 때로는 모양이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고 논증한다.

2) Sharp and Warren(2009: 442)의 논의를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

Tamori and Schourup(1999: 101) 역시 영어에서는 의성어를 만드는 것이 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의성어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모양이나 움직임의 흉내 낸 단어들도 존재하며 이들은 광의의 의성어에 포함된다고 기술한다.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친 Ullmann(1981: 84)의 설명을 살펴보자.

From the semantic point of view, a distinction has to be made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onomatopoeia. Its primary form is the imitation of sound by sound. [...] Terms like *buzz, crack, growl, hum, plop, roar, squeak, squeal, whizz* and a great many others fall into this category. In second onomatopoeia, the sounds evoke, not an acoustic experience but a movement (*dither, dodder, quiver, slink, slither, slouch, squirm, wriggle*), or some physical or moral quality, usually unfavourable (*gloom, grumpy, mawkish, slatternly, slick, slimy, sloppy, sloth, slovenly, sluggish, wry*).

Ullmann(1981)은 ‘1차적 의성어(primary onomatopoeia)’와 ‘2차적 의성어(secondary onomatopoeia)’를 구분했다. 소리를 흉내 낸 말은 전자로,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은 후자로 분류한 것이다.

결국, 영어에는 개별 의태어들을 총칭하는 용어는 없지만 광의의 의성어(onomatopoeia)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³⁾

아울러, 한국어 의성의태어와 마찬가지로서도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양쪽으로 사용되는 영어 의성의태어도 있다(예: *flush, flash*).

참고로, 영어 의성어·의태어의 기본 품사는 감탄사이다. 이는 감탄사로 사용될 때 ‘모방성(mimeticity)⁴⁾’이 높아 의성어·의태어적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이다(Tamori & Schourup 1999: 201).⁵⁾ 하지만 동사, 명사, 부사, 형용사,

3) 다만, 한국어로 작성된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광의의 ‘onomatopoeia’를 ‘영어 의성어·의태어’라고 표현한다.

4) Tamori and Schourup(1999: 96-198)에서는 영어 의성어·의태어의 모방성(mimeticity) 측정 기준으로 1) 감탄사로 사용됨, 2) 인용부호 내에 등장함, 3) 복수형으로 사용되지 않음, 4) 동사 ‘go’와 함께 사용될 수 있음 등을 제시했으며, 보다 많은 항목을 충족할수록 모방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5) 언어별 음소제한(phoneme restriction)과 음소배열규칙(phonotactic rule)에 의해 실제 모방성은 높지 않을 수 있으며, 의성어·의태어 여부의 판단을 위해 직관이나 사전에

동명사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복수의 문법적 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영어의 동사화 경향으로 인해 실제 감탄사로 사용되는 경우(4.2%)보다는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87.8%)가 압도적으로 많다 (Takashi 2001: 37).

2.3. 한국어-영어 의성어·의태어 비교

사용 빈도, 형식, 분포, 언어적 필요성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와 영어 의성어·의태어는 격차를 보인다. 구체적인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표 3. <한국어-영어 의성어·의태어 비교>

	한국어 의성어·의태어	영어 의성어·의태어
1	반복형이 일반적	단독형이 일반적
2	의태어의 수적 우위	의성어의 수적 우위
3	의성어·의태어를 통한 동사의 구체화	의성어·의태어의 동사화
4	기본 품사가 부사	기본 품사가 감탄사
5	폭넓은 장르·연령층에서 사용	한정된 장르·연령층에서 사용

첫째, 한국어 의성어·의태어는 반복형이 두드러지는 특징인 반면 영어 의성어·의태어는 단독형이 주를 이룬다. 물론, ‘핑’, ‘꼭’, ‘갸웃’, ‘갸우뚱’ 등의 단독형도 존재한다. 하지만 반복형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며 반복의 양상도 다양해 전체가 반복되는가, 일부가 반복되는가에 따라 전체반복(예: 뽕뽕, 가물가물, 몽기적몽기적, 어슬렁어슬렁, 철퍼덕철퍼덕)과 부분반복(예: 번지르르, 사르르, 쿵작작)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형태 그대로가 반복되는가, 일부가 변하여 반복되는가에 따라 동음반복(예: 가물가물, 너울너울, 야들야들)과 유음반복(예: 는실난실, 싱송생송, 티격태격)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1음절, 2음절, 3음절 반복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채완 2003: 56-58). 반면, 영어 의성어·의태어는 반복형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아니고, 특히 동음반복은 흔치 않으며 단독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LLC⁶⁾와 LOB⁷⁾ 분석 결과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60

의존해야 할 때가 많다(Sharp & Warren 2009: 447)

개 영어 의성어·의태어는 모두 단독형이다(Takashi 2001: 5-6). 다만, 영어 의성어·의태어 역시 반복을 통해 동작이나 소리의 바꿈을 보여주거나 리듬적인 동작과 생각을 강조할 수 있으며 모음 교체를 통한 반복(예: rickety-rackety, pitter-patter, clip-clop)과 자음 교체를 통한 반복(예: roly-poly, teeny-weeny, hokey-pokey)이 가능하다(강신흥 2001: 316-317). 이러한 형태는 모음과 자음, 음절이 교체되는 한국어·의성어의 유음반복과 유사하지만 한국어·의성어 의태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동음반복형과는 차이를 보이며 상당히 제한적이다.

둘째, 한국어에는 의태어가 의성어보다 더 많고, 영어에는 의성어가 의태어보다 더 많다. 한국어 의성어·의태어의 총 흉내뿌리⁸⁾ 수는 3,627개이며 이 중 의태어 흉내뿌리가 70% 이상(2500개 이상)을 차지하며, 단순히 수적으로만 아니라 형식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의태어가 의성어보다 앞선다(박동근 2008: 26-30). 반면, 영어는 의성어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영어에는 개별 의태어들을 총칭하는 용어조차 없으며 ‘2차적 의성어’로 불리거나 예외적인 현상으로 간주될 뿐이다. 영어 의태어는 극소수이며 287개의 흉내뿌리 중 의성어가 전체의 80% 이상(240개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Takashi 2011: 20-36). 아울러, 영어 의태어는 모양이나 움직임에 모방했거나, 그렇다고 명확히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셋째, 한국어에서는 동사와 의성어·의태어가 함께 사용됨으로써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표현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은 반면 영어에서는 의성어·의태어 자체가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영어 의태어는 더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경우 ‘웃다’라는 동사 앞에 ‘방긋’, ‘싱긋’, ‘깔깔’, ‘키득키득’, ‘깔깔’, ‘빙그레’ 등 다양한 의성어·의태어를 위치시켜 구체성과 생동감을 더할 수 있다. ‘울다’ 앞에도 ‘흑흑’, ‘징징’, ‘훌쩍훌쩍’, ‘펄펄’ 등을 붙임으로써 생동감 있는 묘사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동사에만 의존하여 소리와 움직임을 나타내기보다는 동사가 의성어·의태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노진서 2008: 49). 반면, 영어의 경우 동사 안에 의성어·의태어적 요소가 스며들어 있는 경우

6) London Lund Corpus

7) Lancaster-Oslo/Bergen Corpus of British English

8) ‘흉내뿌리’란 ‘물렁물렁’의 ‘물렁’과 같이 의성어·의태어의 반복형을 구성하는 단순형식을 의미한다.

가 많으며, 완전한 의성어·의태어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88% 이상이 명사나 동사로 사용되고 있으며 명사 의성어·의태어 중 85%는 동사로도 활용될 수 있다(Sharp & Warren 2009: 440-441). 예를 들어, ‘laugh’ 앞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붙이기보다는 ‘chuckle’, ‘cackle’, ‘chortle’, ‘giggle’, ‘guffaw’ 등의 동사 의성어·의태어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의성어·의태어로 분류되지 않는 동사들도 상당수가 구체성을 띠고 있고 수적으로 풍부하다.

넷째, 한국어 의성어·의태어의 기본 품사는 부사인 반면 영어 의성어·의태어의 기본 품사는 감탄사이다. 상징부사로 불리기도 하는 한국어 의성어·의태어는 기본적으로 서술성 부사로 분류되며 주로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영어 의성어·의태어는 기본적으로 감탄사로 분류되며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보인다. 또한, 감탄사로 사용될 때 모방성이 극대화된다. 다만, 한국어든 영어든 다양한 품사로 파생될 수 있기에 하나의 문법적 범주로 고정시키기는 힘들다.

다섯째, 한국어와 영어의 의성어·의태어 모두 감각적이고 생동감 있는 표현을 가능케 한다는 특성으로 인해 만화나 아동 문학 등에 보다 빈번히 등장하지만 영어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물론, 한국어에서도 학술논문이나 법조문 등 개념적 의미의 전달이 중요한 텍스트에 의성어·의태어가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글이라도 표현적 텍스트와 호소적 텍스트에서는 빈번히 등장하는 등 장르나 사용 연령에 따른 제약이 심하지 않다(김순임 2003: 39). 특히, 의성어·의태어가 입말보다는 글말에 가깝기 때문에, 즉 일반 담화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시각이나 청각 등의 정보를 현장에서 공유하기 때문에 감각적 언어인 의성어·의태어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지만 소설 등에서는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현 비율이 높다(박동근 2008: 33). 반면, 영어에서는 의성어·의태어가—특히, 감탄사로 사용될 경우—과도하게 감성적인 언어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아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글보다는 비공식적인 대화 상황에 보다 빈번히 사용된다(Schourup 1993: 51). 더 나아가, 영어에서는 의성어·의태어 사용이 화자나 저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로 생각되기도 하며(채완 2003: 5-6), 아동을 위한 시나 전래동요 등 한정된 장르에서만 간혹 찾아볼 수 있는 정도다(신지선 2005: 170). 참고로, CHILDES⁹) 코퍼스 분석을 통해 한국어와 영어 화자(아동/성인)의 의성어·의태어 사용 비율을 분석한 배성

봉과 박혜원(2012: 105)의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결과가 드러났다.

표 4. <한국어, 영어 사용 아동 및 성인의 의성어·의태어 사용 비율>¹⁰⁾

	한국어	영어
아동	2.73%	1.10%
성인	2.24%	0.32%

한국어 사용자의 경우 어린이의 의성어·의태어 사용 비율이 2.73%로 성인의 2.24%에 비해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성인들 역시 의성어·의태어를 빈번히 사용한다. 반면, 영어의 경우 아동의 의성어·의태어 사용 비율도 1.10%로 한국어 사용 아동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성인이 되면 0.32%로 급감한다. 결국, 한국어 의성어·의태어와 달리 영어 의성어·의태어는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주로 ‘유아어’로 인식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한국어 의성어·의태어가 아동은 물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에서도 널리 사용될 수 있는 반면 영어 의성어·의태어는 성인보다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에 보다 적합한 경우가 많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필자 역시 이에 동의하며, 번역 방향성에 따라 번역 기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3. 의성어·의태어의 번역 기법

본 장에서는 한국어 의성어·의태어의 번역 사례 분석을 통해 주요 번역 기법을 분류하고 각각의 장단점 및 유의점을 논하기로 한다.

3.1. 영어 의성어·의태어(감탄사) 사용 기법

이 기법은 영어 의성어·의태어(감탄사)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한국어와 영어

9) Child Language Data Exchange System

10) CHILDES 매뉴얼에 따라 전사된 스크립트에는 형태소 표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CLAN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과 성인의 발화에서 의성어·의태어를 추출한 후 전체 발화에서의 비율을 계산했다.

의성어·의태어의 기본 품사가 각각 부사와 감탄사이기 때문에 등가 의성어·의태어가 존재한다면 가장 자연스러운 등가를 구현할 수 있다.

영어 의성어·의태어(감탄사)를 사용한 번역 1

- (가) 서역 십만 리로 꿈무늬에 불을 달고, 두 귀에 방울 달고 **왈강달강 왈강달강** 벼락같이 떠나거라. (김동리 1936/2005: 426)
- (나) With fire on your tail, and the bells on your ears, “**jingle-jangle, jingle-jangle**” go off to the West, like the thunder, go to the hundred-thousand miles West. (김무홍 옮김 1975: 217)

‘작고 단단한 물건들이 어수선하게 자꾸 부딪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가)의 한국어 의성의태어(부사) ‘왈강달강’이 (나)에서는 ‘a tinkling metallic sound[쟁그랑(짚랑, 딸랑)하는 금속성 소리]’를 나타내는 영어 의성어(감탄사) ‘jingle-jangle’로 번역되었다. 방울 소리를 직접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영어에서도 생생한 표현이 재현되었으며, 유음반복형인 ‘왈강달강’과 모음 교체형인 ‘jingle-jangle’은 형태적으로도 유사하기 때문에 등가를 이룬 번역이다.

영어 의성어·의태어(감탄사)를 사용한 번역 2

- (가) 그 순간이었다. **쿵쿵!** 굴 안이 미어지는 듯하면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졌다. (하근찬 1957/1994: 25)
- (나) That was the instant. **Wham!**—the dynamite exploded and it was as if the inside of the cave was being torn to shreds. (O’Rourke 옮김 1981: 22)

‘무겁고 단단한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거나 다른 물체와 부딪쳐 울리는 소리’ 또는 ‘총이나 대포를 쏘거나 폭발물이 터져서 울리는 소리’를 나타내는 (가)의 한국어 의성어(부사) ‘쿵(+쿵)’이 (나)에서는 ‘loud, sudden noise(크고 예상치 못한 소리)’를 나타내는 영어 의성어(감탄사) ‘wham’으로 번역되었다.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의성어를 사용함으로써 등가를 달성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가)의 반복형 의성어를 (나)에서는 단독형으로 처리했는데, 앞서 2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한국어 의성어·의태어를 영어 의성어·의태어로 옮길 때

는 반복형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한국어 의성어·의태어의 두드러지는 형식이 반복인 반면 영어 의성어·의태어는 단독형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영어 의성어·의태어(감탄사)를 사용한 번역 3

- (가) 동동. 북이 우노라. (신석초 1959/1985: 69)
 (나) Ding, ding, beats the drum. (김재현 옮김 1980: 131)

‘큰북 따위를 잇달아 두드리는 소리’를 나타내는 (가)의 한국어 의성어(부사) ‘동동’이 (나)에서는 ‘sound of metal when struck(쇠를 치면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영어 의성어(감탄사) ‘ding’으로 번역되었다. ‘ding’이 주로 쇠로 만든 물체(종, 자동차 등)를 들이받거나 두드릴 때 나는 소리(땡땡, 쿵)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절하다고 보기 힘들다. 북이 울리는 소리를 나타내는 영어 의성어(감탄사) ‘boom-boom’을 사용해 “‘Boom-boom’, beats the drum.”으로 번역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나타내고자 하는 소리나 모양이 출발어와 도착어에서 다를 경우, 등가 달성에 실패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영어 의성어·의태어(감탄사)를 사용한 번역 4

- (가) “허허.” 나쁜 일을 하다가 들킨 때처럼 석은 까닭 없이 잠깐 얼굴이 붉어졌다. (안수길 1953/1994: 163)
 (나) “Huh, huh.” As if he had been caught out in some shameful act, for no reason, Suk briefly blushed. (김무홍 옮김 2000: 70)

‘슬프거나 놀라거나 기막힌 일을 당하였을 때에 깊이 탄식하여 내는 소리’를 나타내는 (가)의 한국어 의성어 ‘허허’가 (나)에서는 ‘sound to express surprise, disbelief, or confusion, or as an inquiry inviting affirmative reply(놀람, 불신, 혼란스러움을 나타내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때 나는 소리)’인 영어 의성어(감탄사) ‘huh’의 반복형으로 번역되었다. 한국어 의성어 ‘허허’와 영어 의성어 ‘huh’는 그 의미나 사용되는 상황이 다를 뿐 아니라 ‘huh’는 단독형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번역이라 판단하기 힘들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 의성어·의태어(감탄사)를 사용하는 기법은 시각적·청각적 효과와 리듬감을 온전히 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로,

영어 의성어·의태어는 감탄사로 사용될 때 모방성이 극대화된다. 다만, 출발어와 도착어의 의성어·의태어가 나타내는 소리나 모양이 같거나 유사해야 하며 대등한 상황에서 대등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한국어의 경우 의성어·의태어가 아동은 물론 성인의 언어인 반면, 영어의 경우 감탄사로 사용되는 의성어·의태어는 특히 유아어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에서 사용된 한국어 의성어·의태어를 영어 의성어·의태어(감탄사)로 옮길 때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3.2. 영어 의성어·의태어(동사) 사용 기법

이 기법은 영어 의성어·의태어(동사)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한국어에서는 동사와 더불어 의성어·의태어가 사용되어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표현을 만드는 반면, 영어에서는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동사 사용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한 번역이다. 다만, 감탄사로 사용될 때보다 모방성이 낮으며 의성어·의태어 판단이 용이하지 않을 때가 많다.¹¹⁾

영어 의성어·의태어(동사)를 사용한 번역 1

(가) 나는 **킬킬** 웃는다. (천상병 1979/1995: 9)

(나) I **giggle**. (안선제와 김영무 옮김 2010: 135)

‘웃음을 억지로 참으면서 입 속으로 웃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가)의 한국어 의성의태어 ‘킬킬’(+웃다)이 (나)에서는 ‘laugh in a manner suggestive of foolish levity or uncontrollable amusement(바보처럼 경박하거나 참을 수 없이 재미있어서 웃다)’라는 뜻의 영어 의성의태어(동사) ‘giggle¹²⁾’로 번역되었다. 동사로 사용되는 영어 의성어·의태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동사화 경향이 짙은 영어의 특성을 고려한 번역 기법이다.

11) 이에 본 절에서는 도착어 텍스트에서 사용된 어휘가 어떠한 의성어·의태어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SPE(1931/2006)에 기초해 간략하게 제시한다.

12) ‘giggle’의 ‘-gg-’와 같은 동일자음반복(bb, gg, tt, dd)은 동작의 반복을, ‘-le’는 반복음과 동작을 나타낸다.

영어 의성어·의태어(동사)를 사용한 번역 2

- (가) 사냥꾼은 나무꾼이 가리키는 쪽으로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한림 1990: 4)
- (나) The hunter **dashed** in the direction the woodcutter pointed. (Vorhees & Mueller 옮김 1990: 4)

‘갑자기 빠른 동작으로 뛰거나 몸을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가)의 한국어 의태어 ‘후다닥’(+)달려가다)이 (나)에서는 ‘to move violently or suddenly(과격하게, 또는 갑자기 움직이다)’라는 영어 의태어 ‘dash¹³⁾’로 번역되었다. 영어 의태어의 수가 극히 제한적이지만, 등가 의태어가 존재한다면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영어 의성어·의태어(동사)를 사용한 번역 3

- (가) **바드득** 이를 갈고 죽어 볼까요? (김소월 1925/1994: 39)
- (나) Shall I **gnash** my teeth and die? (김재현 옮김 1996: 38)

‘단단하고 질기거나 반드러운 물건을 되게 문지를 때 되바라지게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가)의 한국어 의성어 ‘바드득’(+)이를 갈다)이 (나)에서는 ‘to strike teeth together(이를 바드득 갈다)’라는 뜻의 영어 의성의태어 ‘gnash¹⁴⁾’로 번역되었다. 영어에서는 의성어·의태어 자체가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가를 이루는 번역이라고 판단된다.

영어 의성어·의태어(동사)를 사용한 번역 4

- (가) **바르르** 꽃잎이 훈김에 떠다. (김춘수 2002: 30)
- (나) Petals **shiver** in the warmth. (고창수 옮김 2002: 31)

‘가볍게 조금 떠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가)의 한국어 의성의태어 ‘바르르’(+떨다)가 (나)에서는 ‘to shake slightly because you are cold, afraid, etc.(추위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가볍게 떨다)’라는 뜻의 영어 의성의태어

13) ‘dash’의 ‘-sh’는 격렬한 움직임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14) ‘gnash’의 ‘-n’은 지속되는 소리와 움직임을, ‘-sh’는 격렬한 움직임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어 ‘shiver¹⁵⁾’로 번역되었다. 대등한 상황에서 대등한 기능을 하는 번역이며, 등가 달성에 성공했다는 판단이다.

영어 의성어·의태어(동사)를 사용한 번역 5

(가) 눈물 **아롱아롱** (서정주 1948/1980: 107)

(나) Tears **glinting** (김재현 옮김 1980: 40)

‘또렷하지 아니하고 흐리게 아른거리는 모양’ 또는 ‘여러 가지 빛깔의 작은 점이나 줄 따위가 고르고 촘촘하게 무늬를 이룬 모양’을 나타내는 (가)의 한국어 의태어 ‘아롱아롱’이 (나)에서는 ‘to shine in small bright flashes(밝게 번쩍이며 빛나다)’라는 뜻의 영어 의태어 ‘glint¹⁶⁾’로 번역되었다. (가)에서 사용된 ‘아롱아롱’이 ‘초롱초롱’의 반의어에 가깝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나)에서 ‘glint’를 사용한 것은 오역으로 보인다. 두 단어가 나타내는 모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독자들이 떠올리는 모습 역시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등가 달성에 실패했다고 판단된다.

이 기법의 최대 장점은 3.1장에서 논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각적·청각적 효과와 리듬감을 압축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영어의 동사 선호도를 고려할 때, 간결하면서 힘 있는 글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다만, 출발어와 도착어의 의성어·의태어가 나타내는 소리나 모양이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

3.3. 설명적 어구 사용 기법

이 기법은 등가 영어 의성어·의태어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적절할 경우 설명적 어구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한국어와 달리 영어 의성어·의태어의 수가 제한적이고 사용 빈도가 낮기 때문에 종종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설명적 어구를 사용한 번역 1

(가)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 (김소월 1925/1994: 112)

(나) The road spokes off **in myriad directions** [...] (김재현 옮김 1996: 82)

15) ‘shiver’의 ‘sh-’는 격렬한 움직임, ‘-er’은 반복되는 소리와 움직임を示한다.

16) ‘glint’의 ‘gl-’은 빛을, ‘-t’는 빠른 동작을 나타낸다.

‘여러 가닥으로 갈라지거나 찢어진 모양’을 나타내는 (가)의 한국어 의태어 ‘갈래갈래’(+갈리다)가 (나)에서는 ‘in myriad directions(무수히 많은 방향으로)’로 번역되었다. 앞서 논했듯, 영어는 특히 의태어가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법을 사용해야 할 때가 많다. 이 경우, 구체적인 동사를 사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영어는 동사가 발달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위의 예에서도 명사 ‘spoke(바퀴살)’에서 파생된 동사 ‘spoke(바퀴살처럼 뻗다)’는 비록 의성어·의태어로 사전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생동감 있고 구체적인 어휘다.

설명적 어구를 사용한 번역 2

- (가) 여자가 **기웃기웃**하며 내 옆을 따라 내려왔다. (윤대녕 1996: 48)
 (나) The woman followed me, by my side, **looking around distractedly**.
 (김술자 옮김 2002: 54)

‘무엇을 보려고 고개나 몸 따위를 이쪽저쪽으로 조금씩 자꾸 기울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가)의 한국어 의태어 ‘기웃기웃’(+하다)이 (나)에서는 ‘looking around distractedly(산만하게 주위를 보다)’로 번역되었다. 의미가 충분히 전달된 무난한 번역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look(보다)’의 하위어 ‘snoop(기웃거리다)’ 등을 사용함으로써 구체성을 더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설명적 어구를 사용한 번역 3

- (가) 영달이는 손을 잠바 호주머니에 처박고 연신 **폼지락**거렸다. (황석영, 1973/2000: 398)
 (나) Youngdal kept his hands in his pockets. He constantly **worked them to keep warm as best as he could**. (김유창 옮김 2000: 186)

‘몸을 천천히 좀스럽게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가)의 한국어 의태어 ‘폼지락’(+거리다)이 (나)에서는 ‘worked them to keep warm as best as he could(따뜻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손을 움직였다)’로 번역되었다. ‘폼지락’과 등가를 이루는 영어 의성어·의태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록 한국어 의성어·의태어가 지닌 응축성, 생동감, 리듬감은 사라졌지만 의미를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다만, ‘to keep warm as best as he

could(따뜻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는 번역가가 임의로 첨가한 내용인데, 출발어 텍스트에 비해 글이 장황해질 수 있으며 과잉 번역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¹⁷⁾

설명적 어구를 사용한 번역 4

- (가) 옆방 여자가 와 있나 싶어 주위를 둘러보는 사이에 찻집 사내가 바다에서 비를 맞으며 **치벅치벅** 걸어 나왔다. 턱수염에서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운대영 1996: 53)
- (나) While I was looking around the group for the woman from room 209, the restaurant owner came **walking heavily** out of the sea, with the **rain falling** on him. (김술자 옮김 2002: 64)

‘무겁게 발자국 소리를 내며 걷는 모양’을 나타내는 (가)의 한국어 의태어 ‘치벅치벅’(+)걷다)이 (나)에서는 ‘walking heavily(무겁게 걷다)’로 번역되었다. 물론, 부사 ‘heavily’로 동사 ‘walk’를 수식하도록 번역함으로써 기본적인 의미는 옮겼다고 볼 수 있지만 ‘trudge(터덜터덜 걷다)’, ‘plod(터벅터벅 걷다)’ 등의 구체성을 띤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비록 이들 동사가 영어에서 의태어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walk’의 하위어이며 걷는 모습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반적인 동사(상위어)를 사용한 후 구체성을 더하기 위해 부사로 동사를 수식하는 방식보다는 생동감 있고 구체적인 동사 자체를 영어에서 선호하기 때문이다.¹⁸⁾

이와 더불어 ‘굽은 물줄기 따위가 잇따라 부드럽게 흐르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가)의 한국어 의성의태어 ‘줄줄’(+)흐르다)이 (나)에서는 사실상 생략된 채 ‘rain falling’으로 옮겨졌다. 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독자로서는 비가 흐른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내리는지를 상상하

17) 이러한 종류의 첨가는 번역 텍스트에서 종종 발생하는데, 번역학자인 베이커는 이를 ‘명시화 가설(explicitation hypothesis)’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Baker 1993: 243-245). 즉, 출발어 텍스트에 비해 도착어 텍스트가 보다 논리적이고 이해가 수월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번역가가 내용을 첨가하고 출발어 텍스트에서 내재화된 내용까지 명시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논리를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18) 형용사나 부사 없이 명사와 동사만으로 문장을 만들면 글이 간결해지고 힘을 얻게 된다(Strunk & White 2000: 71).

기 힘들다. 상위어 ‘fall’만을 사용하기보다는 생동감 있고 구체성을 드러내는 하위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명적 어구를 사용한 번역 5

(가) 길 건너 언덕에서는 **알록달록**한 뱀 한 마리가 돌 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김동리 1936/1994: 46)

(나) A snake on the hill opposite, **its back a maze of designs**, disappeared through a crack in the rock. (O'Rourke 옮김 1981: 38)

‘여러 가지 밝은 빛깔의 점이나 줄 따위가 고르지 아니하게 무늬를 이룬 모양’을 나타내는 (가)의 한국어 의태어 ‘알록달록’이 (나)에서는 ‘its back a maze of designs(복잡한 무늬의 등)’로 번역되었다. (가)를 읽는 한국어 독자가 ‘알록달록’이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는 다양하고 선명한 ‘색깔’을 떠올리게 되는데, (나)를 읽는 영어권 독자는 종잡을 수 없이 복잡한 ‘무늬’를 상상하게 된다는 점에서 등가 번역이 아니다. 즉, 수용자의 연상과 반응에 있어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간결·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위의 논의를 통해 한국어 의성어·의태어와 등가를 이루는 영어 의성어·의태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명적 어구를 사용해 번역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시각적·청각적 효과나 리듬감을 온전히 재현하기는 힘들지만 등가를 이루는 영어 의성어·의태어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유용하다. 다만, 설명이 간결·정확해야 하며 구체성을 띤 동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의성어는 청각에, 의태어는 시각이나 촉각에 뿌리를 둔 감성어로서, 음운 형태와 의미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의성어·의태어는 언어사용자의 감각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글에 생동감과 리듬을 불어넣는다. 특히, 한국어 의성어·의태어는 수적·질적으로 풍부하며 사용 빈도가 높다. 반면, 영어 의성어·의태어는 수적으로 빈약하며 특정 연령과 장르에 한정

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의성어·의태어의 차이점을 규명하고 한국어 의성어·의태어를 영어로 옮길 때 동원할 수 있는 번역 기법을 논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어와 영어에서 의성어·의태어의 개념 및 특성이 어떠한 격차를 보이는가를 파악해 번역에의 함의를 찾으려 했다. 이어 사례 분석을 토대로 번역 기법을 분류하고 각각의 장단점 및 유의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의성어·의태어의 개념 정의 및 해석의 기준과 도구를 제시했다.

2장에서는 의성어·의태어에 대한 개념 및 특성을 한국어와 영어로 나누어 살펴보고 비교했다. 의성어·의태어를 언어적 기재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상이 다르다는 점은 물론 5가지 구체적인 차이점이 드러났다. 첫째, 한국어 의성어·의태어는 반복형이 일반적인 반면 영어 의성어·의태어는 단독형이 지배적이다. 둘째, 한국어에는 의태어가 의성어보다 더 많은 반면 영어에는 의성어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특히 의태어는 광의의 의성어에 포함될 뿐이다. 셋째, 한국어에서는 동사와 의성어·의태어가 함께 사용됨으로써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표현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은 반면 영어에서는 의성어·의태어 자체가 동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넷째, 한국어 의성어·의태어의 기본 품사는 부사인 반면 영어 의성어·의태어의 기본 품사는 감탄사이다. 다섯째, 한국어와 영어의 의성어·의태어 모두 감각적이고 생동감 있는 표현이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만화나 아동 문학 등에 보다 빈번히 등장하지만 영어에서는 보다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3장에서는 한국어의 의성어·의태어를 영어로 옮길 때 활용할 수 있는 번역 기법을 1) 영어 의성어·의태어(감탄사) 사용 기법, 2) 영어 의성어·의태어(동사) 사용 기법, 3) 설명적 어구 사용 기법으로 크게 분류한 후 각각의 장단점 및 유의점을 논했다. 첫 번째 기법은 영어 의성어·의태어(감탄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영어 의성어·의태어는 감탄사로 사용될 때 모방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듣기 어휘가 존재한다면 시각적·청각적 효과와 리듬감을 온전히 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출발어와 도착어의 의성어·의태어가 나타내는 소리나 모양이 같거나 유사해야 하며 대등한 상황에서 대등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두 번째 기법은 영어 의성어·의태어(동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영어에서는 구체

적이고 생동감 있는 동사 사용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한 번역이다. 첫 번째 기법과 마찬가지로 출발어와 도착어의 의성어·의태어가 나타내는 소리나 모양이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 세 번째 기법은 설명적 어구(부사나 형용사 활용 포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한국어 의성어·의태어와 등가를 이루는 영어 의성어·의태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동원할 수 있다. 다만, 설명이 간결·정확해야 하며 가급적 구체성을 띤 동사를 사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어와 영어 의성어·의태어의 간극을 파악하고 한영 번역 시 활용할 수 있는 의성어·의태어의 번역 기법을 제시하려 노력했으나 연구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보다 다양한 장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언어 방향성에 따라 서로 다른 기법이 동원될 수 있지만 한영 번역만을 대상으로 했다. 셋째, 번역 기법 분류가 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아쉽지만 이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아울러, 필자의 기술 방식이 처방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으나, 처방을 무시한 기술번역학으로 인해 번역학이 실무와 분리되어 실제 번역 행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실무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간과하는 이론은 결국 번역의 다양한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Mossop 2005: 24)을 고려할 때 다소 처방적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객관적이고 실증적 분석에 기초한다면 구체적인 기법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일부 학자들의 추상적 논의가 번역 현실의 기대와 동떨어져 있어 앞으로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와 해결책을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Pym 2000: 336-337)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듯 본 연구는 큰 틀에서 보면 아주 작은 부분만을 다루었을 뿐이며 부족한 점도 많다. 앞으로 연구가 축적되고 보다 세분화된 기법이 제시되어 번역가들이 직관과 더불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이 마련되리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국내>

강신흥 (2001) 「영어의 의성어·의태어 연구: 음성상징어의 의미론적 고찰」, 『영어영문학연구』 27(2): 305-325.

- 국립국어원 (2008)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국립국어원.
- 김경희 (2011) 「의성어와 의태어의 번역전략 고찰 - 한국 소설의 프랑스어 번역을 중심으로」, 『프랑스학연구』 58: 33-53.
- 김미옥 (2004) 「초등학교 국어과 흥내말 지도 방안」, 『어문학교육』 28: 39-75.
- 김순임 (2003) 「독일어와 한국어의 의성어·의태어 비교 연구」, 『독일언어문학』 21: 23-54.
- 남풍현 (1993) 「중세국어의 의성의태어」, 『새국어생활』 3(2): 93-115.
- 노진서 (2008) 「한·영 시 번역 텍스트에서 활용된 의성어·의태어 번역 전략」,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10(1): 45-63.
- 목정수, 연재훈 (2000) 「상징부사(의성·의태어)의 서술성과 기능동사」, 『한국어학』 12: 89-118.
- 박동근 (2008) 『한국어 흥내말의 이해』, 서울: 연락.
- 배성봉, 박혜원 (2012) 「한국 아동의 의성어와 의태어 사용」,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1): 101-115.
- 신지선 (2005) 『아동문학 영한번역의 규범연구: 가독성과 가화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 세종대학교.
- 채완 (2003)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국외〉

- Books LLC (2011) *Onomatopoeia*, Memphis, TN: Author.
- Bussmann, H. *Routledge Dictionary of Language and Linguistics*, London: Routledge.
- Collins Cobuild (2012) *Advanced Dictionary of English* (7th ed.), Glasgow: HarperCollins.
- Fromkin, V., Rodman, R., & Hyams, N. *An Introduction to Language* (9th ed.), Wadsworth: Cengage Learning.
- Macaulay, R. (1994) *The Social Act: Language and Its Us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erriam-Webster (2008)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Springfield, MA: Author.

- Mossop, B. (2005) What Practitioners Can Bring to Theory?: The Good and the Bad. In: J. Peeters (Ed.),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ranslation Theory and Translation Practice* (pp. 23-29), New York: Peter Lang.
- Nida, E. A., & Taber, C. R. (1982)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 Pharies, D. A. (1979) *Sound Symbolism in the Romance Languages*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Pym, A. (2000) 'Why Common Ground is Not Automatically Space for Cooperation: On Chesterman versus Arrojo', *Target* 12(2): 334-337.
- Schourup, L. (1993) 'Contrastive Study of Japanese and English Onomatopoeia', *Gengo* 22(6): 48-55.
- Sharp, H., & Warren, B. (2009) 'The Semantics of Onomatopoeic Words', *Folia Linguistica* 29(3-4): 437-448.
- Society for Pure English (SPE) (1931/2006) *Phonetic Symbolism* (S.P.E. Tract No. 69), Oxford: Clarendon Press.
- Strunk, W., Jr., & White, E. B. (2000) *The Elements of Style* (4th ed.), New York: Macmillan.
- Takashi, S. (2011) *Onomatopoeia in Spoken and Written English: Corpus- and Usage-based Analysis* (doctoral thesis), Hokkaido University.
- Tamori, I., & Schourup, L. (1999) *Onomatopoeia: Morphology and Semantics*, Tokyo: Kurosio.
- Ullmann, S. (1981)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Oxford: Basil Blackwell.

〈예문 발췌 문헌〉

- 김동리 (1936/2005) 「무녀도」, 김중년(편저) 『한국단편소설 35』(400-423), 서울: 리베르.
- 김무홍 옮김 (1975) 'Picture of a Sorceress', 공병희(편저) *Korean Short Stories* (190-227), 서울: 일지사.

- 김동리 (1936/1994) 「바위」, 김병학(편저) 『한국단편 99선 1』(41-50), 서울: 타임기획.
- O'Rourke, K. 옮김 (1981) 'The Rock', 연세대학교 출판부(편저) *Ten Korean Short Stories* (31-43),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김소월 (1925/1994) 「길」, 윤주은(편저) 『김소월詩 전집』(112), 서울: 학문사.
- 김재현 옮김 (1996) 'Road', *Sowol Kim, Korea's Greatest & Best Loved Lyric Poet of the Century: Unforgettable Love* (82), 서울: 백문사.
- 김춘수 (1957/2002) 「꽃2」, 김춘수(편저) 『한국대표시인 101인 선집: 김춘수』, 서울: 문학사상사.
- 고창수 옮김 (2002) 'Flower 2', *Korea's Golden Poems* (31), 서울: 한림출판사.
- 서정주 (1948/1980) 「歸蜀道」, 『西으로 가는 달처럼』(40), 서울: 문학사상.
- 김재현 옮김 (1980) 'A Journey to Cathay', *Master Poems from Modern Korea since 1920* (40), 서울: 시사영어사.
- 신석초 (1959/1985) 「바라춤」, 『바라춤』(69), 서울: 용성출판.
- 김재현 옮김 (1980) 'Bara Dance', *Master Poems from Modern Korea since 1920* (131), 서울: 시사영어사.
- 안수길 (1953/1994) 「제삼 인간형」, 김기웅, 김병학(편저) 『한국단편 99선 4』 (153-182), 서울: 타임기획.
- 김무홍 옮김 (2000) 'The Third Human Type', 공병희(편저) *Korean Short Stories* (54-98). 서울: 일지사.
- 윤대녕 (1996) 「천지간」, 박공근(편저)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20』(23-61), 서울: 문학사상사.
- 김술자 옮김 (2002) *Between Heaven and Earth*, 서울: 지문당.

천상병 (1979/1995) 「계곡흐름」, 『저승 가는 데도 여비가 든다면』(92), 서울: 답게.
안선재, 김영무 옮김 (1995) ‘Flowing Stream’, *Back to Heaven: Selected Poems of Chon Sang Pyong* (204), 서울: 답게.

하근찬 (1957/1994) 「수난 이대」, 김병학(편저) 『한국단편 99선 5』(19-30), 서울: 타임기획.

O'Rourke, K. 옮김 (1981) ‘The Suffering of Two Generations’, 연세대학교 출판부(편저) *Ten Korean Short Stories* (19-29),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한림 (1990) 「선녀와 나무꾼」, 한림출판사(편저) 『선녀와 나무꾼, 불개』(2-29), 서울: 한림출판사.

Vorhees, Duance, & Mueller, Mark 옮김. (1990). ‘The Woodcutter and the Heavenly Maiden’, 한림출판사(편저) *The Woodcutter and the Heavenly Maiden & The Firedogs* (2-29), 서울: 한림출판사.

황석영 (1973/2000) 「삼포 가는 길」, 김성은, 염종선, 김명재(편저) 『황석영 중단편전집 2』(200-225), 서울: 창작과비평사.

김유창 옮김 (2000) ‘The Road to Sampo’, 정정화(편저) *Modern Korean Short Stories* (176-201). Hong Kong: Heinemann.

[Abstract]

Comparison between Korean-English Onomatopoeia and Translation of Korean Onomatopoeia into English

Kim, Do-Hu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Onomatopoeia occupies a unique language category, as it displays non-arbitrariness: its phonological form is more directly associated with meaning.

Building upon previous researches on onomatopoeia, this paper aims to answer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are the unique features of Korean and English onomatopoeia? Second, what strategies can be used to translate Korean onomatopoeia into English?

As for the first question, this study illustrates how onomatopoeia takes on the functional role as a unique linguistic entity. Following the analysis, this research contrast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and English onomatopoeia, so as to find implications for translation. As for the second question, this paper presents three techniques: replacing Korean onomatopoeia with English onomatopoeia (interjection); replacing Korean onomatopoeia with English onomatopoeia (verb); and explaining (inserting additional information or employing adjective, adverb, etc.). Following the classification, the author discusses how such strategies can be deployed and what attentions should be paid.

It is of notable interest that onomatopoeia often invites “headaches” in Korean-English translation and that the issue has been neglected in the academic discipline of translation studies, which calls for the need to address the above research questions.

The author hopes the contrastive analysis and translation techniques herein will contribute to characterizing the issues and problems during the course of translation and to offering guidelines for those in the translation profession.

▶ Keywords: mimeticity, phonological form, primary onomatopoeia, secondary onomatopoeia, translation technique

김도훈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교수

kdh8377@bufs.ac.kr

관심분야: 비교언어학, 문화소 번역, 문체론

논문투고일: 2014년 2월 3일

심사완료일: 2014년 2월 21일

게재확정일: 2014년 3월 12일